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총알도 바람도 넘어선 '번개' 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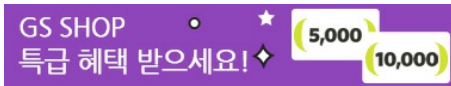
송고시간 | 2008-08-16 23:50



<올림픽> 총알도 바람도 넘어선 '번개' 볼트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썬더볼트'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 전 세계 60억 인구의 관심 속에 치러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우뚝 섰다.

볼트는 16일 베이징 귀자티위창(國家體育場) 트랙에서 벌어진 인간탄환 대결에서 9초68을 찍어 9초95에 그친 종전 세계기록 보유자 아사파 파월(26.자메이카)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그는 결승선을 20m 앞두고 완승을 확신한 듯 양팔을 벌리고 포효하며 골인했다.

196cm의 큰 키에 몸무게는 86kg로 균형잡힌 체격을 자랑하는 볼트는 올해 파월과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챔프 타이슨 게이(26.미국)이의 양파전으로 흐르던 100m 판도에 지각 변동을 가져 온 인물이다.

볼트는 5월4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초청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76을 찍고 혜성처럼 등장했다. 200m가 주 종목으로 100m에서는 10초03이 최고기록이던 그는 세 번째 100m 도전 만에 9초76을 찍어 육상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한 달이 채 안된 6월1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뉴욕 그랑프리대회에서 파월이 보유 중이던 세계기록(당시 9초74)을 8개월 만에 새로 쓰면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0순위 후보로 급부상했다. 100m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위업이었다.

볼트는 당시 지난해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 100m, 200m, 400m 계주에서 3관왕에 오른 게이와 레이스를 치렀고 출발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면서 게이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우승했다.

볼트는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200m와 4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딴 유망주로 200m가 주종목이다.

2004년 200m에서 19초93으로 주니어 선수로는 최초로 20초 벽을 깨면서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작성했고 IAAF로부터 '200m 분야 기대주로 일찍부터 공인된 그는 지난해에는 19.75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자국 기록을 36년 만에 갈아 치운 200m 스페셜리스트다.

"200m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스피드 보강 차원에서 뛰다"는 이유로 100m에 도전했던 그는 정상에 오르면서 200m까지 2관왕을 바라보게 됐다.

200m에서는 게이가 출전하지 않아 그를 막을 자는 없다. 역대 올림픽에서 100m와 200m를 동시에 우승한 이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제시 오웬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칼 루이스(이상 미국) 등 8명이 있었다.

볼트는 출발 때 힘차게 블록을 박차고 나가는 연습에 집중하면서 스타트 반응 속도가 몰라보게 좋아졌고 이게 우승의 결정적인 비결이 됐다.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마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파워 포워드 케빈 가넷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다.

cany99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6 23:50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
·시간 제한없다

신규확진 12만5846명...위중증 999명, 이틀연속 900명대



We Do Technology

尹당선인 "물가상승 장기화 대비...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소화"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검
찰에 고발

157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 3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동재개 예열?

56
- 4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41
-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
찰이 혐의 밝혀냈다?

29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충청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리